



미국 사회복지 교육의 중심 NASW, CSWE

| 기사/사진 : 강선경 (서강대학교 교수)

김신열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지난 2005년 11월 8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사회복지계 교수 및 실무자 20명이 사회복지 지도자 해외연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촛불재단 (Points of Light Foundation), 미국 공동모금회 (United Way of America), 사회보장국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미연방가정아동보호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사회복지교육협의회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인보관 (United Neighborhood House) 등 미국의 사회복지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종 복지사업 및 지역복지 지도자의 사회운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기관방문 중,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SW)와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 방문은 한국의 관련 협회들의 업무활동 및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NASW, 대중교육캠페인 (public education campaign)

통해 사회복지사 이미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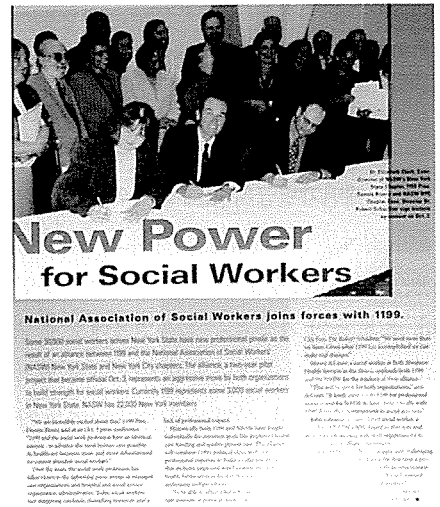
로비스트 직접 활동,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개입

1955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전미사회복지사협회

(NASW)는 현재 153,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가장 큰 전문직 조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기준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정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각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전문적 성장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수

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50개 주에 각각 지부가 있고, 그 외 Guam, Virgin Islands, Puerto Rico, International 에도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들의 지속적 교육, 자격증과 증명서, 책임보험, 의료보험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서적과 자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NASW는 학생, 교수, 현사회복지사, 은퇴자 등 14가지 종류의 다양한 회원 체도를 두고 있으며, 각 회원체에 따르는 혜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중교육캠페인 (public education campaign)을 통하



▲ 사회복지사에 대한 언론 기사

여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협회 및 사회복지자들의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기할 것은, 전미사회사업가협회(NASW)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6명의 로비스트가 로비활동을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들 로비스트들은 사회복지직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이나 주단위의 법률을 모니터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과제나 지역주민들이 가진 문제해결에 대한 정보를 정치후보자들에게 제공하여 지원을 호소하거나 정치후보자를 지지하기도 한다. 특히 TV토론 등에서 정치후보자에게 사회복지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책을 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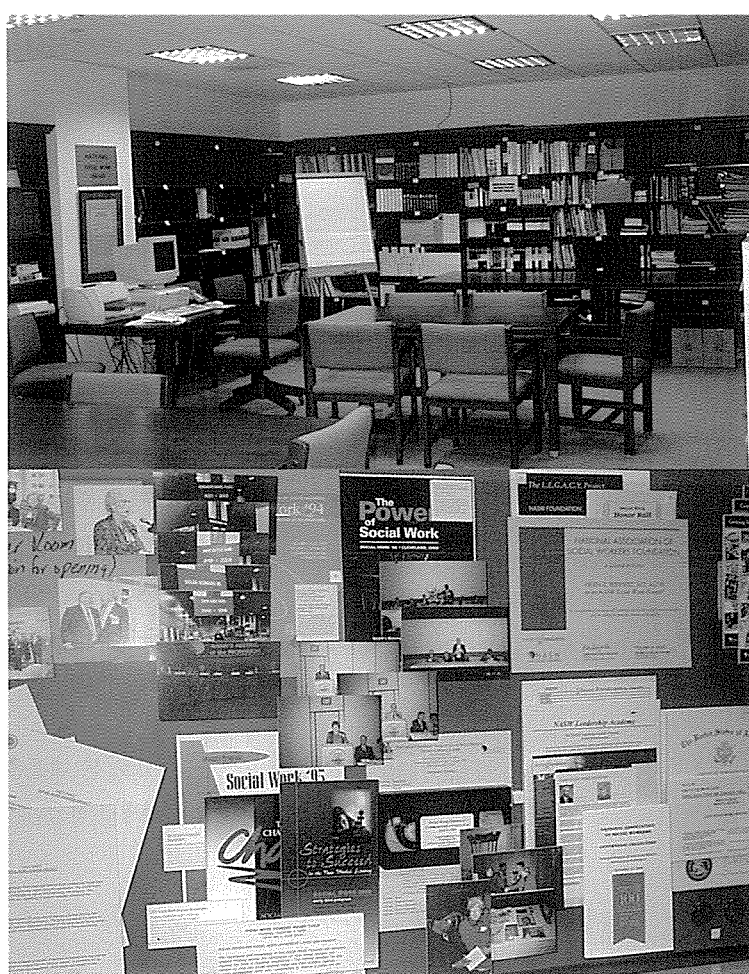
CSWE, 610개 석·학사 대학 회원

사회사업교육 기관 인정절차 체계적 진행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알렉산드리아 도심지 중심에 위치한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는 전체가 검붉은 톤의 8층짜리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었다.

CSWE에는 모두 30여명의 직원들이 거의 모두 정규직원(Full-time)으로 일하고 있다. 협의회는 2004년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168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 제공 대학들과 442개 학사과정 프로그램 제공 대학들을 회원교로 두고 있다. 총무행정(Office of Finance & Administration), 교육관련 조사연구(Office of Social Work Education & Research), 회원관리(Office of Member & Communication Services), 그리고 사회사업교육기관 인정심의(Office of Social Work Accreditation & Educational Excellence) 등 모두 4개 부서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협의회 CEO, 교육관련 조사 연구부서와 교육기관 인정 심의 부서의 부서장은 모두 박사들(full-time)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느꼈다.

최근 CSWE가 갖고 있는 고민은 크게 네 가지로서, 첫째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한 on-line 상의 강의에 대한 인정여부 문제, 두 번째는 사회사업 전공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박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 모색, 셋째는 정부의 대학교육 지원예산 삭감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 모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층(특히 이민자 및 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관련 전공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회사업교육 기관 인정절차 역시 대학교 수준에서의 자격요건 심사, 프로그램 실시 대학의 자기 평가, CSWE의 인정심의 부서가 구성한 방문 평가단(site-visit team)의 대학 방문 평가, 방문 평가단의 평가서에 대한 해당 대학의 답변, 인



▲ NASW 내부모습

정심의 기구 위임위원회(CSWE's Commission on Accreditation)의 심의 및 최종 결정회의 등 모두 여섯 단계에 걸쳐 대단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 연수를 통한 각 기관방문 중 특히, NASW, CSWE의 방문은 그 무엇보다 한국 사회복지계에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물론 미리 연락을 취한 방문이었지만 협의회 CEO라 할 수 있는 Executive Director인 Dr. Watkins와 사회사업교육기관인정 심의부서 Director인 Dr. Pierce 등 모두 4명이 여러 가지 다과와 자료들을 준비하고 우릴 반갑게 맞아 주어, 그들의 몸에 밴 친절에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한, 각 기관조직 소개를 비롯, 최근 미국 내 사회사업 교육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관련 이슈들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교육기관 인정절차에 대한 설명도 담당 책임자로부터 직접 듣고 관련 자료들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서 말한 NASW의 정책 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특히 눈여겨볼 만 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에도,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적법한 통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NASW 로비스트제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향후의 대외적 활동에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